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구세주를 아는 이들(찬14/새26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정병철 장로 2부/이해원 집사 3부/전승운 집사 4부/오새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승천(작곡 Houg Holck)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31-32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21-39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3) 아내를 버리려거든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 긴 하루, 그 다음날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찬305/새559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자연미와 인공미

Natural Beauty and Artificial Beaut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학창 시절 친구 따라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고향이 제주도였기에 따라갔지만 참 멀게 느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후, 또 한참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갇혀있었는데 친구가 부모님과 제주도 방언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 시골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빌딩 숲들이 보이자 갑자기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는 시골보다는 도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방문 이후 한국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라면 자연미와 인공미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말 그대로 자연이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도 저 멀리 눈 덮인 산들을 볼 수 있고, 산행하며 걷는 길에는 풀을 뜯어먹는 소와 말들이 있어서 말똥 소똥 밟을까 조심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한참을 달려 올라가 잡은 산속의 숙소도 전통적인 게르 형식의 운치 있는 숙소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서울은 한마디로 콘크리트 아파트의 숲이었습니다. 작은 땅 덩어리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하니 집을 층층이 높이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한 교회들도 대부분 지하로 파고, 위로 여러 층을 올려지었습니다. 작은 대지에 최대의 건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한국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잘 못 보는 친구 목사들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6학년을 넘다 보니 젊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사역의 비전을 얘기하던 패기는 간데없고 손주 사진 보여주며 자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꾸며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인공의 미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잘 지은 아파트에 살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미를 좀 더 추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 큐티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합니다. 자기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왔던 인위적 삶이, 압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더 인식하는 성숙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went to visit a friend in Jeju Island when I was a student. I went because my friend's home was in Jeju Island. It felt like a long trip. After arriving in Jeju Island by ship, it took a while to get to the countryside. His home was in a small village in countryside. I remember being confused and unable to understand what was being said when my friend and his parents talked to each other in Jeju dialect. For almost all of my school age, I lived in Seoul. Jeju Island was just as natural as one could imagine. I remember how my heart felt relieved from being stifled when I came back to Seoul and seeing the forest of tall buildings after the interesting experience in Jeju Island's countryside. I felt I enjoy being in city more than countryside.

If I were to tell the difference of going to Korea after visiting Kyrgyzstan,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natural beauty and artificial beauty. Kyrgyzstan was natural beauty, as people said. Even in the middle of a city, you could see snowcapped mountains in the distance. When walking through mountain trails, there were horses and cows grazing along the path. I had to be careful not to step on horse and cow manure. We drove through unpaved roads for a while to arrive at our lodging. It was a native Ger type of lodging in the middle of a mountain. After spending a week there, when I arrived in Seoul Korea was, in a word, a forest of concrete apartments. To accommodate a large population in a small land, they had to stack homes on top of each other. Most of the churches I visited had basements below and many floors above. I think Korea has mastered maximization of usable space on a small plot of land.

While in Korea, I met with some of my pastor friends that I rarely saw in the States. We are in our 60's now. Rather than sharing the ambition for ministry like “Lord, give me this land” when we were young, we were more like ordinary grandfathers proudly sharing pictures of their grandchildren. If we were dreaming and developing plans to pursue artificial beauty when we were young, after having lived in well-built apartments, we are now in a season when we desire to return to countryside and seek more of the natural beauty.

Meditating on Jacob's life in Genesis in our morning QT, I wondered if transforming a life is like that of Jacob. Jacob changed and turned over the handle of his life, the life that was previously made according to his own desire and plan, to God and conformed to Him as he wrestled Him at the ford of Jabbok. I would like to think that more mature life of realizing the natural beauty, rather than artificial beauty, awaits us.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3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아내를 버리려거든

(마 5:31-32)

1. 신 24:1을 읽으시고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마음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31절)

2. 모세가 이혼을 인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주님을 답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완악함'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1-32절, 참고/ 마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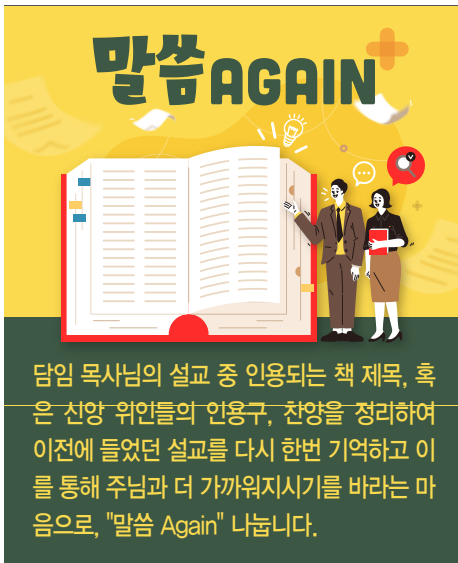
3. 결혼의 본질(essence)은 무엇입니까? (참고/ 마 19:5-6, 겔 16:8)

4. 간음하여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듯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간음을 한 우리 죄인들을 다시 불러 오십니다. (참고/ 호 2:2, 7, 14-16)

5. 이혼할 수많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재혼 한 후에, 또 다시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을 때, 깨달아지는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참고/ 엡 5:31-32)

적용하기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2022년 3월 20일 설교 중〉

이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ides of Athens)는 바빌로니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기독교인(초대 교회 성도)으로 사람을 4그룹으로 나누면서 기독교인에 대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아폴로지(Apology)라는 서신에서, 초대 교회 성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과부를 돕는 일을 빼놓지 않으며, 고아들을 보호하고, 없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저 주며, 지나는 객에 집을 내어주고, 형제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형제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베델교회 성도들을 묘사하는 글이 이렇게 쓰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담임 목사님께서 베델교회 버전으로 바꾸어 주신 내용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베델 성도들은 얼굴 표정이 밝고, 서로 위하고, 섬기기를 새벽부터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장학 사역을 하며, 선교사 자녀들과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돕고, 세계적으로 재난 당하는 곳이 있으면 제일 먼저 성금을 모아 보내주고,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내일의 소

맛을 내고(분별력), 빛을 비추는(영향력) 성도로

망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세워 아끼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자들이며, 목회자를 존경하며 한마음으로 따르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기 때문이라."

찬양 "선한 능력으로" -본 회퍼

(Dietrich Bonhoeffer by Von Guten Machten)

〈2022년 3월 20일 설교 중〉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독일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1944년 12월 겨울 옥중에서 마지막 시를 쓰신 뒤 4개월 후, 2 차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두고 4월9일에 교수형으로 39세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시는 본 회퍼 목사님의 옥중 유고중 하나로, 사형당한 그해 해에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바친 그의 마지막 글이자 시입니다.

이 시는 독일

교회에서 매우 사랑받는 시이며 찬송가로서, 독일의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인 고백 찬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2022년 4월 10일 설교 중〉

바리새인은 ①도덕적이었지만 의식적이었고 ②의로웠지만 외형적이며 형식적이고 ③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사람들을 잘

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수많은 계명과 율례를 묵숨 걸고 지키던 바리새인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나 자신의 의지로 '안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절대(absolute)가 바뀐다

〈2022년 4월 3일 설교 중〉

우리는 지금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없이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 righteously govern the world without God and the Bible.) -조지 워싱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데서나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찾아지기를 원하신다.

God is everywhere. However, He does not want you to reach out for Him everywhere but ONLY in the Word. -마틴 루터

베델뉴스팀

베델지역 - 셀동산

셀목자님 감사합니다



처음 셀모임에 참석했을 때 낯설어하던 저희 부부를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이하여 환영해 주셨던 집사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낯선 미국 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여러 어려움과 고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은 일까지도 생각하고 신경 써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이곳 미국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로 우리 가족과 셀식구를 응원하여 주신 그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기만 합니다.

또한 절대 미각과 장금이 못지않는 음식 솜씨로 셀식구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신 목자님을 얼바인의 백종원이라 불러 드리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교회 일에 항상 묵묵히 섬기시는 모습 속에서 부족했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며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심한 돌보심과 응원, 기도로 셀식구를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박상준 집사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같은 두 분의 신실한 섬

김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목자로 섬김이 이번이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하다시며 늘 더 낮아져서 섬기려 애쓰시는 모습에 참 섬김이 무엇인지, 참 공동체가 무엇인지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배워갑니다. 매일 아침 큐티 나눔을 하며, 매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했는데 목자님은 저보다 한 술 더 큰 죄인이시라며(^^)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 안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더 돈독한 믿음으로 서가는 셀이 되도록 늘 애쓰시는 목자님!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조미료 사용 하나도 하지 않은 건강식으로 기쁘게 음식 대접도 해 주시고 직접 담근 김치도 나눠 주시며 나누고 베풀이 배가 되어 영만 살찌야 하는데 육까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름처럼 설레는 첫사랑 셀로 함께하며 누가 더 큰 죄인인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아름다운 셀로 우리 함께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셀의 목

자님으로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두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정찬 집사

베델교회에 등록하고 2010년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이미 4-5년간 셀 목자로 섬기고 계셨던 걸로 압니다. 신앙에서의 '열심, 부지런함'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셀식구를 섬기는 셀목자님 가정을 통해 늘어지고 싶고, 그늘에 있고 싶었던 저희 가정에 격려와 신앙의 도전이 전해졌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득 이렇게 몇 자 적으면서 돌아보니, 흔히들 쓰는 'Good old days'라는 말이 새삼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가한 지금도 한결같이 동생뻘 셀식구의 세상살이뿐 아니라, 신앙의 대소사도 챙겨 주시고, 더 나아가 여전히 선교와 전도의 열심, 그 비전도 모범으로 보여주는 셀목자님 내외분을 베델의 가족 여러분께 자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목자님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Better new days'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욱 집사

교육부

교사로 부르신 축복 나라

오늘은 예쁜 화분을 선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쑥스럽게도 셀목자님 부부께서 꽃다발까지 선
물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배웠고 선생님들께 감사

하며 축하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BYM 교회 학교에서도 그리고 셀모임에서도 선생님이로 축하해주셨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말씀 공부를 하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큰 사랑의 선물도 제가 받았습니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할 때, 함께 앉아 전도사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QT를 나눌 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대할 때면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귀하고 예쁜 학

생들에게 진리가 전해질 때, 조용하지만 확실한 고백을 들을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른들은 사춘기는 누구나 지나온 과정이라며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춘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우리가 지났던 그 시간과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며 그래서 더욱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간절히 주님께 올리게 됩니다. COVID-19를 지나면서 많은 정보와 미디어 홍수 안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

하면 말씀과 기도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매주일 만나는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책임과 의무가 함께 공존하며 또한 분명 쉽게 생각할 수 없음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음은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 주셨고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좀 더 먼저 앞서가는 저희 교사들은 예수님의 본을 우리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학교 선생"이라는 이름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며 참 선생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BYM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Sherry Kim (BYM 중등부 교사)



교회 배치도 다시 보기

목된 주일,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우리를 맞이하는 교회 앞마당에 들어섭니다. 성도님께 새롭게 단장한 베델의 공간들 즉, 영아부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러 부서와 교회 사무실, 영어예배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등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회 곳곳의 각 공간의 위치와 이름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알려드리고자 소개합니다.

이번 '베텔 교회 배치도' 코너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고, 몸뚱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아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단

영아부 : 18-36개월



비즈니스

체육관 : 초등부(4,5학년)

임마누엘 : K-1학년

살롬채플
CIM

비전채
BYM

할렐루야 : 37개월-Pre K

유년부 (2,3 학년)

소망부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기도 사역 두드림(Do Dream)

카타콤 기도회를 통하여 팬데믹 기간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베델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드림(Do Dream)'이라는 이름의 기도회는 '기도로 가슴을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 Do Dream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강하게 임하셨던 중보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이제 [두드림 카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더 많은 분과 함께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문을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팬데믹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베델의 기도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과 미국을 위해, 베델교회의 교역자들과 리더십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환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특별히, 환우 기도 제목 업데이트와 긴급 기도 제목을 [두드림 카톡 채팅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지금 두드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기도사역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섬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드림(Do Dream) 카톡 채널 기도방 참여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베델 기도 사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모바일 인터넷 창에 prayers.bkc.org를 치시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 5/29: ①부-조원태 ②부-조관희 ③부-권조원 ④부-윤세희
 6/5: ①부-정우영 ②부-천승현 ③부-최규덕 ④부-윤여훈
 6/12: ①부-최문혁 ②부-최병웅 ③부-최영수 ④부-윤희정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5,6월) | 5/28: 박기승 6/4: 박기준 6/11: 박기홍 6/18: 김효선

강단꽃(5,6월) | 5/22: 임명신, 장지선 5/29: 송미선 6/5: 지효정 6/12: 박세환, 조기욱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간호사-박현진(한의사),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한 일(비뇨/산부인과), 간호사-윤성자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수요예배** 베델 수요예배에서는 "큐티"라는 주제로 조태현 목사의 강의와 함께 성경을 더욱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실제 큐티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은 영적 유대감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본당에서 현장예배로 드려지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도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셀목자 정기모임** 상반기 마지막 셀목자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각 셀모임은 6월말에 방학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의 나눔이 있는 셀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28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

◆ **신임 셀목자 모집** 베델의 진정한 리더로서, 말씀으로 함께 셀모임을 인도해 나가실 신임 셀목자를 모집합니다.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시니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8월 단기선교팀 모집** 8월 베델의 파송협력 선교지에서 어린이 VBS,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태국(박상선/신영선 선교사)
선교기간: 8월 1일(월)~9일(화) 문의: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베트남(성결/양선 선교사)
선교기간: 8월 11일(목)~18(목) 문의: 정현근 장로 (949)310-1098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9회)**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헌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영 일시: 5월 26일(목) 오전 10시, Youtube 채널을 통해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 (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교사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토요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함께 섬겨주실 교사와 TA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간: 매주 토 오전 10시-오후 2시, 6월 18일(토)까지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다음세대 제자훈련 졸업식** 말씀으로 훈련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경험하는 다음세대 제자훈련 10주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합니다. 베델의 다음세대 자녀들이 진정한 제자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9일(주일) 오후 2시 30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VBS 준비 연합 모임** 2022 VBS를 준비하는 봉사자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장소: 5월 22일(주일), 5월 29일(주일) 오후 12시 45분-5시, 체육관

◆ **아기학교: 마미앤미(Mommy&Me) 교사 모집**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중 프로그램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어 마미 앤 미 학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모든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영어 중고등부(BYM) Fishfest 2022** Hillsong, Bethel Music 등의 예배팀이 참여하는 부흥집회가 열립니다. 자녀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각 부서 담당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시/장소: 6월 11일(토) 오후 5시, FivePoint Amphitheatre
문의: 중등부-천승현 집사 (512)947-7291, 고등부-여옥제 목사 (818)270-5454

◆ **BYM, CIM 졸업 뱅킷** 베델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의 졸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졸업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졸업식 뱅킷을 가질 예정입니다.
- CIM(8학년, 12학년) 일시/장소: 5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문의: 김도석 집사(714)401-0532
- BYM(12학년) 일시/장소: 6월 3일(금) 오후 7시, 비전채플
문의: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교회 버스 운전면허 클래스** 교회 버스 운전으로 섬기기 원하셨지만 Commercial B 면허가 없셨던 분들을 위해 필기, 실기시험까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을 오픈합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 주차 사무실 앞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최길석 집사 (213)663-3667, 서우석 집사 (213)435-3690

◆ **베델 기도사역(Do Dream) 오픈 채팅방 운영** 함께 공동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카카오톡에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Join해 주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온라인 헌금 Subsplash 중단 안내** 기존에 사용하던 온라인 헌금방법 중 Subsplash 서비스는 6월 15일(수)부터 중단됩니다. Tithely는 유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헌금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수민 집사 (949)854-4010 ext. 112

◆ **위로해주세요**

- 故 이창욱 장로님(이선주 권사의 남편)께서 5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문수 성도님(이현동 집사의 부친, 광소이 집사의 시부)께서 5월 19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호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o Abandon Your Wife

(Matthew 5:31–32)

- 1.** Let's share the occasions when you were dissatisfied with your spouse, after first reading Deut 24:1. (v. 31)
- 2.** What did Jesus say is the reason Moses permitted divorce? Let's discuss if our hearts are also "hard". (v. 31-32, Ref: Mat 19:4-9)
- 3.** What is the essence of marriage? (Ref: Mat 19:5-6, Ezek 16:8))
- 4.** As one brings back an adulterous wife who had left home, God calls back us sinners who committed adultery of idolatry. (Ref: Hos 2:2, 7, 14-16)
- 5.** When you don't divorce despite many reasons that may 'justify' it, and if you are remarried and don't divorce again even if there are reasons to divorce, then you finally understand how God our Father, despite many reasons to abandon us, still holds on to us. Let us pray for each other's families. (Ref: Eph 5:31-32)

Apply to Life

